

일본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실태 조사

- 조덕희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1. 출장자: 조덕희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1. 9. 13(화, 휴일) ~ 9. 17(토, 휴일)

3. 출장지: 일본 동경 (사이타마현 포함)

4. 출장목적:

용역과제(중소기업이업종교류 활동실태 및 관련정책) 수행을 위하여 일본 중소기업 간 이업종 교류 실태 및 관련정책에 대한 조사를 주목적으로 함. 아울러 현지 방문기관 별로 상황에 맞추어 일본 창업 실태 및 벤처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

II. 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자	방문기관	면담자
9/13(화)	김포출발→ 동경도착	* 휴일 출발
9/14(수)	동경상공회의소 사이타마현 경제산업성	사사키 과장, 오노다과장, 오노부주사 / 곤노 과장보좌, 와시즈 과장 하라다 과장보좌 등
9/15(목)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Kotra 동경지사	모리타 과장, 다나카 과장대리, 사카구치 등 / 김용주 소장, 서연학 소장 요코야스 과장대리
9/16(금)	일본 중소기업청 동경대학산학본부	야마오카 계장, 스즈키 보좌 니시마 보좌, 요시마켄이치 계장, 마스터가 계장 등 / 가가미 교수
9/17(토)	동경출발 → 김포도착	* 휴일 도착

* 통역: 김용주 소장(중소기업진흥공단 동경사무소)

III. 주요 면담내용

1. 이업종 교류 실태 관련 내용

- 일본은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평성17년 시행)'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간 이업종교류(新連携支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신연휴지원사업은 다른 분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등을 개발·판매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임.
- 신연휴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시장 수요가 다양화되는 경제환경에서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의한 신산업 창조가 중요하다.
 - 그러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사업을 창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각자 경영자원의 강점을 투입하면,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다른 분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그 경영자원(기술,판로 등)유효하게 조합함으로써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의 신연휴사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핵심(core)중소기업, 이 분야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NPO·조합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의 법인격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계획기간은 통상 3년 이상 5년 이내임.
 - 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새로운 상품개발·판매 ②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③상품의 새로운 생산방식 혹은 판매방식의 도입 ④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 혹은 기타 새로운 사업활동 등으로 참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신연휴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 코아 중소기업(사업핵심주체)이 존재할 것
 - 이업종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 참여할 것
 - 긴밀한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참여 각각 기업의 역할이 분명할 것(내부규약 등 명확)
 - 지역·업종 기준에서 볼 때 신사업활동일 것
 - 신수요 및 신시장개척의 가능성이 높을 것
 - 신연휴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는 제도 홍보 → 상담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 인증 심의 → 사업계획 실시 지원 및 과정상의 문제점 해결

지원의 순으로 이루어짐.

- 신연휴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배분 문제를 놓고 참여 기업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규약을 명문화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함.
- 신연휴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수단(인정후)은 다음과 같음.
 - 융자 우대조치: 정부계금융기관을 통하여 저금리 정책자금 및 고도화자금 융자지원 실시
 - 신용보증 우대조치: 신용보증 특례
 - 보조금 지원: 신연휴대책사업(사업화·시장화지원사업)
 - 투자 우대조치: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 특례
 - 조세상의 우대조치: 설비투자 감세
 - 기타 우대조치 : 특허료 등 감면조치
 - 중소기업기반기구에 의한 hands-on 지원(인증후 5년간) : 프로젝트매니저에 의한 구체적인 경영·판로 자문을 실시함.
 - 자금지원시 담보부담은 코어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 정부의 신연휴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은 2008~2011년 기간 인정건수 총 442건에 달하며, 년도 별로는 2008년 180건에서 2009년 187건, 2010년 66건 2011년 현재까지 9건 등으로 점차 줄고 있음.
- 신연휴지원사업의 성공사례
 - 목재 문(door)을 생산하는 코아 중소기업과 불연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중소기업, 연구·대학 등이 참여하여 고기능목재 문을 제작·판매에 성공함.

- 한편 신연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는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른바 헨즈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지원시책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자문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판로개척, M&A, 주식공개를 위한 경영기반 정비 등 경영 전부문을 포괄함.
 - 파견 전문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중소기업진단사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됨.
 - 지원내용은 6개월 이내 혹은 6개월~2년으로 구분되며, 전문가가 월 1~2회 정도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형태임.
 -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은 전문가 1인당 1일 16,700엔을 부담하는 정도임.

2. 창업, 벤처 및 기타 관련 내용

- 일본은 대학생의 성향이 점차 보수화(안정 추구)하고 있으며, 창업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임. 또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임.
 - 일본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비중이 2004년 44.3%에서 2008년 68.5%로 늘어난 반면, 창업을 하고 싶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3.6%로 낮아짐.
 - 2010년 신입사원 의식조사에서도 현재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비중이 2003년 30.85%에서 2010년 57.4%로 늘어난 반면에,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31.5%에서 12.8%로 하락함.
 - 창업(開業)시 평균 연령도 1991년 38.9세에서 209년 42.1세로 점차 높아

지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의 경우 비1차산업의 개업률 추이는 미국 및 영국 등에 비해서 낮고, 폐업률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절대수준은 낮음). 국가에 따라서 개·폐업률 통계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일본의 개·폐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개업률은 고용이 있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해서는 2008년 4.2%, 설립등기수를 기준으로해서는 같은 해 3.2%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미국 영국의 개업률은 2007년 각각 12.3% 및 1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의 폐업률은 고용이 있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해서는 2008년 4.5%, 설립등기수를 기준으로해서는 같은 해 3.2%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미국, 영국의 폐업률은 2007년 모두 9.8%로 조사됨.
- 창업인재육성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2009년 및 2010년 대학·대학원의 창업가 양성을 위하여 ①창업가 교육 관련자의 네트워크 구성 ②교수법 교재 등 정보교환 촉진 ③대학·대학원 창업가 교육요람 및 best practice 사례집 작성 ④외부장상 활용촉진 ⑤인턴십 촉진 등 사업을 실시함.
 - 2010년부터는 (재)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 (사)일본일본뉴비지니스협의회연합회, 일본벤처학회 등의 협력을 얻어서 계속 실시하고 있음.
 -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2002~2006년 기간 교육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창업지원시책 사례로써, 예를 들면 동경상공회의소에서는 지자체 자금 70%, 자체수입 30%를 재원으로 하여 창업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운용체계는 일종의 創業塾(일종의 학원)을 운용하면서→테마별 세미나 → 창업자금 조달 상담 → 창업후 경영상담으로 진행됨.
 - 이때 상담 전문가는 창업 경험이 있는 것을 중시하며, 중소기업진단사, 컨설턴트 등의 D/B를 구축하고 있음.
 - 매회 세미나에 대하여 이용 중소기업의 만족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가 결과가 90점을 상회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
- 일본의 엔젤투자 실적은 1997~2010년 기간 동안 투자건수 4,022건, 투자가수 3,288명, 투자액 68.5억엔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엔젤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IT 부분이 29.5%, 서비스 부문이 28.9%, 바이오·환경 부문이 20.1% 순으로 조사됨.
 - 일본의 경우에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시점과 매각시점에 각각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투자시점에서는 (출자액-2천엔) 상당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 상한액은 총소득의 40% 혹은 1,000만엔중 낮은 금액임.
 - 매각시점에서는 투자이익이 발생하면 우대조치가 없지만, 손실이 생기면 다음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함.
 - 일본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잔액은 2009년말 현재 949.4억엔이며, 이중 87억엔은 중소기업기반기구출자사업이며, 57억엔이 중소기업기반기구 이외 공공출자 사업임. 따라서 공공출자 규모는 144억엔으로 전체 949.4억엔의 약 15% 수준임. 이는 한국의 40% 전후 수준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임.
 - 일본의 경우에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총 출자잔액이 약 1,000억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신규 벤처투자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일본의 경우에는 벤처투자 이외에 일본정책금융공사(국민생활사업)를 통하여 신창업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창업촉진을 위하여 심사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1,000만엔까지 융자하는 제도이며, 개업자금의 1/3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음.
 - 융자기간은 운전자금 5년 설비자금 7년 이내임.
- 일본 신창업융자제도의 지원실적은 제도가 창설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83,671건 2,781억엔을 지원함. 이는 벤처캐피탈 투자잔액의 약 2배 수준임. 이것은 일본 벤처자금 정책지원이 투자보다는 융자 위주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일본에서는 여성·청년(30세미만)·노령자(55세 이상)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하여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함.
 - 동제도의 지원실적은 1999~2010년 기간 동안 90,222건 4,508억엔에 달함.
- 이밖에도 일본에서는 창업 예비자 혹은 창업 5년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무담보·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운용중임.
 - 동 제도의 지원실적은 2009년 14,519건 793억엔에 달함.
- 일본에서 대학발 벤처기업수는 2008년 현재 1,809사(누적기준)이며, 고용자수는 약 17,000명 정도임.
 - 대학별로는 동경대학이 125개 기업으로 1위를 차지함. 대학발 벤처기업의 40.1%가 실용화 연구단계이며, 제품화 단계는 전체의 15.1%수준임.
 - 대학발 벤처기업의 창업 자금조달 구성은 자기자금이 58.8%로 가장 높

고 가족·친지가 13.0%, 민간자금 11.2%이며, 정부계금융기관 0.8%, 벤처캐피탈 6.7% 등임.

- 대학발 벤처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약 37.0이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58.9%로 조사됨.
 - 대학발 벤처의 출구전략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IPO 희망은 전체의 29.5%, M&A는 4.4%로 낮게 조사됨. 이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임.
- 창업인큐베이터는 일본 전역에 약 300개소 정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과가 그리 우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운용중임 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살펴보면, 2,000~3000평방미터 독립 건물에 보육 기업체는 약 20여 개사 정도이며, 임대료는 평방미터 당 3,00엔 정도로 매우 저렴함.
- 최근 일본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있는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주로 생필품 관련인 경우가 많다고 함.
 - 일본 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청취함.
 - 과거에는 일본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을 견학하고 배우려는 중소기업자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음.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과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이제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견해를 청취함